

청년들 “중기 정규직 보다 대기업 계약직 선택”

진학사 캐치, 취업준생 대상 첫 직장 선택 기준 조사

10명 중 8명 선택...‘이후 커리어 도움 예상’ 이유 최대 52% “원하는 곳 아니면 기다린다...연봉 최우선 선택”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을 선택할 전망이다. 14일 진학사 캐치가 취업준비생 1457명 고용 안정성보다 기업 규모와 경력 개발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진학사 캐치가 취업준비생 1457명 고용 안정성보다 기업 규모와 경력 개발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

직장으로 ‘대기업 계약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대기업 계약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이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울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15%), ‘정규직 전환 가능성 기대’ (9%), ‘복직·근무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해서’ (50%)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정

규직 경력이 이직에 유리할 것 같아서’ (26%),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3%) 등이 뒤를 이었다.

취준생들은 첫 직장 선택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52%는 ‘원하는 곳이 아니면 기다린다’고 답했으며, 40%는 ‘조건을 충족하면 입사한다’고 답했다. ‘어디든 합격하면 간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해 10명 중 9명 이상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연봉’ (41%)이었다. 이어 ‘성장 가능성 및

직무 경험’ (22%), ‘기업 규모·인지도’ (13%)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과 복지, 워라벨은 각각 7% 수준에 머물렀다.

원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입사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 역시 연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8%는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입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직무 경험을 확실히 쌓을 수 있다면’이라는 응답도 22%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준이 단순한 정규직 여부에서 경력 개발과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청년 인재 확보 경쟁에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Z세대 구직자들은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정규직 여부보다 향후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기업들도 직무 경험과 성장 기회, 경력 개발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소상공인도 AI 시대... 경영혁신 본격 지원”

홍보·고객관리·데이터 분석...현장 AI 활용 강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구현 대상 680개사 선정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상공인도 홍보 콘텐츠 제작, 고객 응대, 매출·상권 데이터 분석 등 경영 현장에 AI를 활용하고, AI 기반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AI 기반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 및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은 민간 기업과 협업체 소상공인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사업장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실습형 교육이다.

올해는 1일 과정 4개, 패키지 과정 3개로 총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총 5000개사 내외의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1일 과정은 소상공인이 짧은 시간 안에 AI 활용법을 익히고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4시간 내외의 현장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생성형 AI 기본 활용법을 비롯해 홍보물·상품 이미지·상세 페이지 제작,

숏폼 콘텐츠 제작, 매출·상권 데이터 분석, 리뷰 대응, 고객 응대 자동화 등 소상공인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패키지 과정은 일정 기간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며,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브랜드·콘텐츠·판매 채널·광고 운영 등을 직접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과정은 브랜드·마케팅 기획, AI 이미지·영상 콘텐츠 제작, 크라우드펀딩 기획, 광고 집행, 성과분석 등 교육생이 실제 판매·홍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또 AI 상생협업교육은 민간기업의 상생지원과 연계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상생지원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일부 과정에서

는 AI 활용 계정, 광고 크레딧, 기획·컨설팅 등 교육 이후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 구축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전주기 지원한다.

올해는 AI 활용모델 구축 대상 1000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발표평가 등을 거쳐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대상 68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실제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 AI 멘토기업과 함께 역량 진단, 원포인트 지원부터 사업 고도화, 마케팅 등 AI 활용계획 수립까지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윤용국 기자 yo1404@gwangnam.co.kr



“승리 열기” 이마트가 이어간다! 집관족 위한 먹거리 행사 이마트가 오는 17일까지 ‘집관족’ (스포츠 경기를 집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위한 맥주와 간편식, 안주류 등 응원 필수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노동청, 폭염·호우 덮친 현장 살핀다

지역 기업 대상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 불시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과 집중 호우에 따른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광주노동청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자동차부품 도장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청이 6월부터 체

감온도 31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예보한 가운데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열스트레스 예방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붕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건조도 등 고온 작업 공정을 운영하고 컨베이어·압력용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이다. 광주노동청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함께 호우 대비 안전조치 실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건조로 작업장 내 온·습도 측정, 계단 난간 미설치, 근로자 안전통로 미확보, 지게차 시동기 관리 미흡, 경광등 미작동, 작업지휘자 미배치,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표지 미부착 등 다수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상·하역 작업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광주노동청은 앞으로 범 위법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을 나선 방침이다. 또 5대 중대재해와 12대 핵심 안전수칙 정착을 위해 홍보물과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폭염과 집중 호우가 겹치는 시기일수록 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로또 6/45

24 29 30 31 35 44

1228회 로또 1등 11명...당첨금 각 27억원

제12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4, 29, 30, 31, 35,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6억983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96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2836명으로 17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춘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60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1만4073명이다.

연휴뉴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회원모집 안내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 특 전
VVIP (A형)	700	6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5회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 비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1회1회4인 기준) (단,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만 사용가능)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VVIP (B형)			- 회원 없음 -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 1일·1회1회4인 기준)
VIP 정회원	500	9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하트 정회원	320	5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해피 정회원	180→160 (할인 20)	5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대) 또는 대충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syyoon1@happinesscc.co.kr

· 골프호텔 객실

